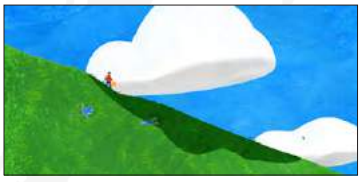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2 Spring 2019

Contents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2 Spring 2019



차성욱 작가 <시23> (2017)

아빠와 두 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둘째가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모자는 여행 내내 가족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곧 둘째는 모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었죠.
외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와 두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통권 32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9. 5. 20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최윤진 안혜민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807-5100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04 **여는글**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

공감의 뱃고동

08 **Space**
돌아와요 부산항에

16 **Harmony**
난생 처음, 유아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26 **Issue**
예술인에게 필요한 표준계약서 활용법
예술인이 알아두면 좋을 저작권 상담 사례

34 **People**
<1976 할란카운티> 유병은 연출가

공감리뷰

42 이주 여성 서발턴(subaltern)들의 무대 위 반란
— 한국말을 더듬거리며 무대로 올라온 여인들

B-side

52 비극적 사건 현장을 찾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돌아와요 부산항애

60 **니, 그거 아나?**
부산 전차 운행의 발자취를 찾아서

66 **누꼬?**
부산을 빛낸 근대역사의 선각자 조선 철도왕 박기종

70 **거 가봤나?**
문현동 철길마을

그리고 재단

78 **듣기**
부산문화재단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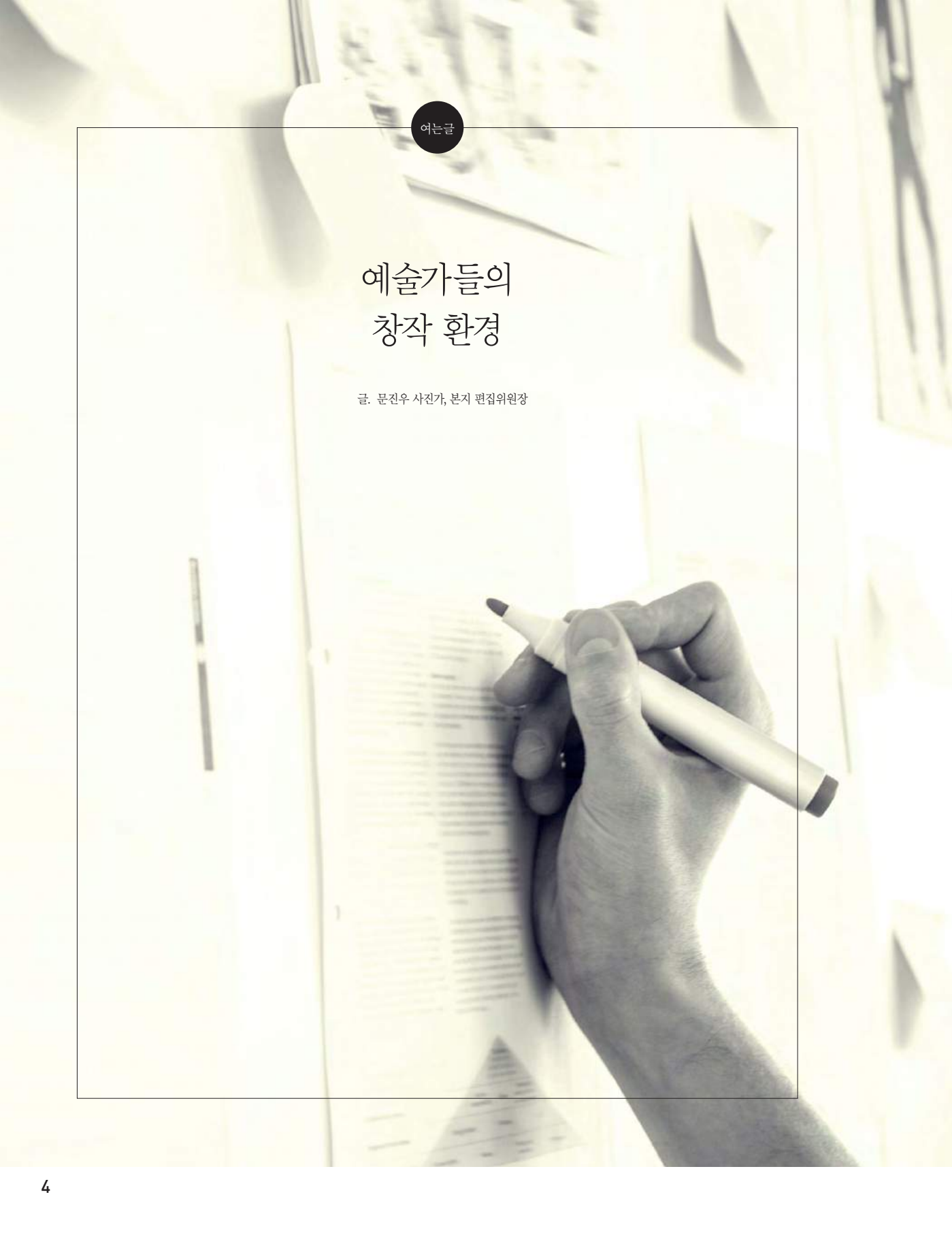
80 **말하기**
필(必)환경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문화예술

82 **보기**
주요행사

여는글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사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로버트 프랭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현대사진의 선구자다. 감히 말하자면 사진계의 피카소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구겐하임재단의 지원을 받아 1955년부터 56년도까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미국 사회를 촬영했다. 그 사진들을 묶어서 1958년 '미국인(The Americans)'이란 사진집을 발간했다.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은 기존 사진 형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형식의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본 20세기 최고의 사진가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폭탄에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극찬했다. 사진을 시작할 초기에 이런 정보를 접했던 나로선 많이 부러웠다. 사진의 내용도 그러했지만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부러웠다.

몇 년 전 부산의 모 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필자가 촬영한 어떤 잡지의 표지 사진이 좋아서 구청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했더니,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에서 사용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되냐는 말을 한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 관이란 곳이 다른 곳보다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공짜라니?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 피렌체를 예술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역할을 알 것이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문화예술을 위해 후원한 가문이다.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귀족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을 적극 후원했다. 이런 활동은 나중에 경쟁 관계의 가문이나 기업들도 이러한 메세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몇몇 재벌기업들이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재벌들은 갑질에 익숙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거대 미술관은 미술시장을 후원하기보다는 헤게모니를 쥐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심할 경우 자금 세탁과 정치 로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사라졌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지원마저도 끊어버리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선 참 부끄럽다.

물론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과 창작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메세나 사업들이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굿모닝 예술인'과 같은 사업들도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또 일부는 아마추어들의 전시사업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업 작가들에겐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우문 같지만 '천국엔 과연 예술이 있을까'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인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술이 필요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혼탁하다는 말이다.

잠수함 속 토끼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토끼는 잠수함 속 산소 부족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위험을 알린다. 예술가는 잠수함 속 토끼처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이다.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예술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공감의 뱃고동

008 **Space** | 돌아와요 부산항에

016 **Harmony** | 난생 처음, 유아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026 **Issue** | 예술인에게 필요한 표준계약서 활용법
예술인이 알아두면 좋을 저작권 상담 사례

034 **People** | <1976 할란카운티> 유병은 연출가

글. 김철우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사진 제공.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돌아와요

부산항에

알티비피얼라이언스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더 살 만한 곳이 될까, 더 오래 지속가능할까에 대한 다양한 가설 제안과 실행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문화 혁신 플랫폼입니다. 2018년 4월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끄티'는 일, 여가, 주거를 위한 유휴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3부작 중에서 두 번째 키워드인 '여가'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 글에서 부족하나마 저희가 어떤 맥락에서 끄티를 기획했고 진행된 실험과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숨은 가치를 찾기 위한 실험

저는 2000년대 초반 선박 장비 개발업을 시작으로 16년간 영도에서 일하면서 영도의 변화를 봐왔었습니다. 최근 영도는 조선 해운업의 불황으로 인해 수변 야드가 대부분 비어있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65세 노령인구 구성비가 26%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도시의 쇠퇴 속도를 말해주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부산의 지자체 중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와 선진 문화를 경험하려고 나고 자란 곳을 떠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역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역민과 같이 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여가, 주거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일자리, 여가, 주거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실험해보는 유휴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연작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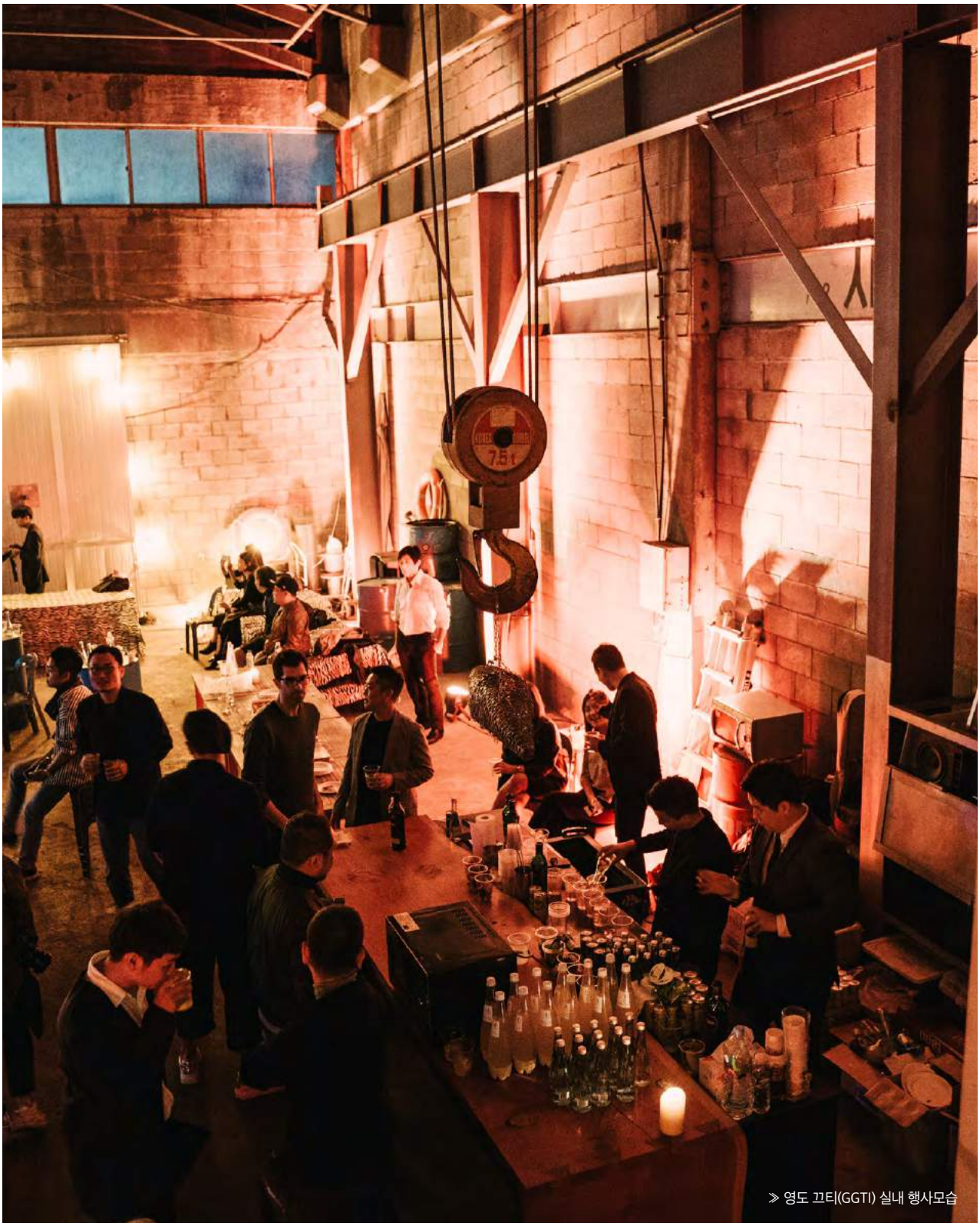
영도의 유휴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시작한 프로젝트 3부작 중 첫 번째 '일자리'를 위한 유휴공간 실험 프로젝트는 수주량이 줄어든 조선기자재 공장을 메이커스페이스로 전환해서 조선, 기계업종 종사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찾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플랫폼 135 프로젝트'(2017년 1월~)였습니다.

2년여 기간 동안 여기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과 공간, 제조 설비를 공유해왔고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논의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 스타트업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기법을 통해 수요 중심으로 빠른 실험을 하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135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도시 농업, 자원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유휴공간 중개, 자율 운항선박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가'를 위한 프로젝트가 복합문화공간 '끄티'(2018년 4월~)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오랫동안 비었던 공장을 매입해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끄티에서는 플랫폼 135 입주기업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지역의 스토리를 경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예술가들에게는 본인이 가진 문제인식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메시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발원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주거'에 대한 실험을 위한 리빙랩 '비탈 788'(2018년 6월~)입니다. 영도 봉래동 봉산마을에서는 현재 '빈집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마을로 활성화한다'는 콘셉트를 가진 마을재생사업이



≫ 영도 끄티(GGTI) 실내 행사모습

4角

≫ (위) 끄티(GGTI) 정면
(아래 왼쪽) 2018. 10. 진행된 캬바레시월 네트워크파티
(아래 오른쪽) 보트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재생사업 과정에 기획자와 활동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실행해보려면 일종의 연구실이 필요한데 비탈 788은 그 실험실과 거점시설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 세 개의 유휴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는 각각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만 지역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긴밀한 연계 작용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력 구조, 경제성 확보, 지역성'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와의 조화를 생각하다

복합문화공간 '끄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는 지역에 온 메이커와 크리에이터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피드백을 스타트업과 예술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화공간에 대한 기획을 시작했는데, 그 공간이 기존의 커뮤니티에 위화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착안해 유휴공장을 활용해서 그 공장의 기존 정체성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조업 커뮤니티에는 익숙하고, 새로 유입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는 새로움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요. 그렇게 끄티를 기획했고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공간의 정체성, 주변 환경, 공간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공간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이 주변 환경과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끄티 주변은 제가 15년 정도 일을 해온 회사 바로 맞은편에 있고 점심시간에 자주 거닐던 산책 코스였기 때문에 주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공간 자체가 가지는 매력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하는 부분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흔적과 그 흔적들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흔적이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

끄티는 다양한 소재의 흔적이 있고 높은 층고의 공간감이 특징적입니다. 특이한 질감이나 패턴들이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작업 현장의 생동감과 손때, 머문 자리의 흔적으로 인해 지나쳐간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낡고 거친 느낌을 통해 오히려 새롭고 전위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끄티 바로 앞에 넓게 펼쳐진 바다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다니고, 정박해 있는 선박과 기계장치의 독특한 조형미,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볼 수 있는 넓은 하늘도 있습니다. 항만시설과 그 작업 풍경도 너무 근사하고요. 매일 다른 모습의 바다 때문에 이 주변은 계절이나 밤낮과 상관없이 항상 새롭습니다.

이런 환경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간 정체성과 주변 환경을 이해한 상태라고 가정하면, 공간의 매력을 더 확장시키고 활용할 주체로서 새로운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람들과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도 끄티(GGTI) 실내 행사모습

≫ 영도 끄티(GGTI) 실내 행사모습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인한 미래 가능성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참여자들과 같이 씬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장애예술인 쇼케이스를 비롯해서 카누 만들어 타기 학교, 테크노 파티, 미디어 아트, 오디오 비주얼 공연, 영화 상영, 다양한 형태의 다원예술, 스타트업의 데모데이와 기업의 주주총회까지 총 30여 회 이상의 크고 작은 실험의 결과물이 기관, 언론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로 저희는 다양한 색깔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공간이 단지 여가 활동을 위한 공연장이나 휴식공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서 이 실험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과 같은 글로벌 침체기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한 번 생각해보면 환경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커뮤니티와 함께 경제가치(효율)를 추구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또 그게 도시의 로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Early Childhood Culture and Art Education

예술의 싹을 틔우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인간 성장 과정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유아교육 안에서도 지능 발달, 인성 함양 등 분야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감수성 및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다. 부산의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개요와 사례를 통해 짚어본다.

난생 처음,
유아 문화예술교육

글. 정혜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동청소년교육팀 주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어렴풋이 공감하고 있다. 개인의 미적 감각과 창의성, 공감 능력과 포용성, 정서적 안정감과 감수성, 사회성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이, 다소 지루해 보이는 것조차 유아에게는 배움이자 처음이 된다.

처음이자 모든 것이 되는 교육

유아에게 '처음'이란 때로는 '모든 것'이 되기도 한다. 어느 가을, 유치원 학부모 참관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만 3세 반 아이들은 가을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논에 있는 허수아비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들에게 물었다. "허수아비는 어디서 볼 수 있지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백화점이요!" 가을철 새를 쫓는 허수아비를 본 적 없었던, 순수했던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백화점에 갖가지 옷들과 함께 전시된 허수아비가 나의 유일무이한 허수아비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며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그때를 웃음으로 회상하신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다. 공교육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유아기의 문화예술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아에게 자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창기 정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몇 백 배의 반대정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듯이(초두 효과), 유아기는 '그런' 시기이다. 문화예술 고유의 가치와 질적 우수함을 잃지 않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유아 본연의 예술성이 드러나도록 기존의 예술교육 방법론을 내려놓아야 하며, 유아의 안전(신체적, 정서적)까지도 확보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뜨거운 사교육 시장이나, 문화시설의 가족 프로그램에서 말고는 유아가 한 개인으로서 문화예술을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게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추진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잠시 소개하려고 한다. 본 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시설에서 개발한 4차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시설은 유아전문가, 문화예술 활동가로 꾸려진 프로그램 개발진과 함께 8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4번 중 최소 1번 이상은 문화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시설의 자원과 연계된, 그러나 현장학습보다는 좀더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여기서의 문화시설은 단순한 공간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주재료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각 지역의 문화요충지인 문화시설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문화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적극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 중 일부는 유아교사 대상 연수로도 지원하였다.

그밖에도 교육진흥원은 EBS와 협력하여 유아, 학부모, 유아교사가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술아 놀자' 등 20여 편의 문화예술교육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방송하였다(교육진흥원 유튜브 채

널에서 확인 가능). 오픈 랩(Lab)을 통해 유아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연말에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퍼런스, 성과공유회 등으로 연간 사업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하여 국제심포지엄 및 유관학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주간행사 일정: 2019년 5월 22일(수)~25(토))

유아들의 예술 본능을 이끌어내는 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이제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된다.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시설에 안착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나 여러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문화시설이라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유아가 처음으로 박물관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잊혀가던 미술관에 유아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

음원으로만 듣던 우리소리를 눈앞에서 들을 수도 있다. 게다가 유아교사들이 미처 충족시키지 못했던 손끝 움직임의 정교함을 공연예술 전문가가 몸소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으로만 봤던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본능적으로 손끝의 정교함을, 작품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몸으로 기억해야 할 예술의 경험

나는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특히 색을 고를 때 더한 것 같다. 나는 이 두려움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술학원 선생님이 하늘을 하늘색으로 칠했다고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선생님은 하늘은 회색이라고 하며 나를 창가로 데리고 가 하늘을 보게 하셨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나에겐 그때의 어린 내가 남아있다. 그림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일이 생기면 나는 고자질하듯 그때의 기억을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때는 하늘을 초록색으로 칠해도 칭찬해줘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준다. 수많은 반대 피드백에도, '하늘색'은 나에게 여전히 과제이다.

유아에게 문화예술은 무엇일 수 있을까? 숫자로 읽어낼 수 없는 많은 노력들이, 성과로 답할 수 없는 무한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한 번 배우면 평생을 몸이 기억하지만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져 배우기 어려운 자전거처럼 문화예술이 유아에게 더 일찍 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처음일 수 있지만, 유아에게는 오늘의 '문화예술교육'이 처음이자 모든 것일 수 있다. 아무런 전제도 단서도 없는 '처음'들로 가득한 유아기이기에 더 좋은,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다.

무용 기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본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글. 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사진 제공. 금정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및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의 책무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유아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유아기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생애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은 미비하였다는 자성(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이 있었다.

유아들이 예술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국가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내에 예술경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선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까지는 유아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개설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2017년부터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등)의 고유 콘텐츠와 교·강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금정문화재단과 협력해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가 부산에서 처음 선발되었다. 잉스문화예술교육소에서 연구진과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그리고 주강사 교육 및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맡고, 금정문화재단에서 예산 집행과 홍보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며, 금정구 25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477명의 유아들이 무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체험을 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부산의 2개 문화기반 시설과 예술교육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한다고 하니 좀 더 많은 영·유아기관에서 유아들이 예술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으로 문화기반 시설과 예술교육단체의 축적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용을 기반으로 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태아 시기의 태동이나 갓 태어난 아기가 온몸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그 발산의 대부분은 이유가 명확하다. 다만 영·유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성인과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의 발달 단계를 모르거나 함께 지낸 시간이 짧은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국 심리학자 앨버트 매라비안(Albert Mehrabian)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면대면으로 대화를 시도할 때 언어적 요소는 7%라고 한다. 그럼 비언어적 요소 93%는 무엇일까? 음성, 말투, 음색의 청각적 요소(38%)와 표정, 몸짓의 시각적 요소(55%)로 대부분 몸으로의 발산과 표현이 대화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말이나 글을 배우기 이전 유아들에게 움직임이란 주변과 소통하고 적응하며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이다. 영·유아기는 태동 때 사용했던 그 언어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시기이다. 유아들에게 언어란 움직임이며 타자와의 소통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유아는 움직임을 통해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배우며, 이런 의미에서 움직임은 건강한 인간 발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박현주, 2018). 생애주기의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어떤 때보다 신체 표현과 활동이 왕성해야 하는 시기지만 정작 유치원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있어서 미술(50%), 음악(18%)보다 신체표현(14%)은 현저하게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교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충실한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의 연령별 수준 적용의 어려움으로 신체표현 수업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신체 관련 수업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예술수업과는 차이가 있다. 체육 수업에서 유아가 지그재그로 놓인 기둥 사이를 한 발로 뛰거나, 낮은 평균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며 걸을 때 감정을 쏟아내듯 발산해서 뛰거나, 오늘 선생님께 꾸중 들었던 기분으로 평균대를 걷는다면, 아마 강당 구석에서 벌을 서거나 어디 아프냐고 걱정스러운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

예술을 통해 나를 몸 밖으로 발산하는 경험

언어적 전달 수준에 그치게 되는 연구나 교재는 '표준'이 되며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된다.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상징적인 것의 지도는 그대로 언어나 상징적인 방식으로만 전달될 뿐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표준은 인습적이고 언어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물론 언어와 상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제한되어 있어서 '매개되는' 작용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확대해 주고, 또 그것을 기호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들과 연결시켜줌으로써 그 의미와 깊이와 폭을 더해 주는 매체의 발명에 의존해 왔다(Dewey, 1916/2011). 특히 이러한 문자에의 의존이나 매체의 발달로 동물과는 다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개인과 인류가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나 상직적인 전달 방식은 간접 경험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대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 경험의 경우 늘 경험에 있어서 새로운 초기 단계인 유아와 동떨어져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흥미를 주기는 어렵다. 철학자 듀이는 이러한 간접 경험은 위험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경험과 관련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송도선, 2004).

2018년 유아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났던 2세 반에서 6세까지 유아들의 특징은 감각 경험이 증가하면서 지각

≫ 내 친구 쭉쭉이 활동사진

능력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움직임의 세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이고, (감각 경험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물체나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몬테소리(Montessori)는 강조한다(박현주, 2018).

과학은 논리적 사고와 판단이며 판단은 지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바로 그것에 사용된다고 했다(Dewey, 1916/2011). 지각에 의한 감각은 두뇌로 가기 위한 입구나 운송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은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유아들은 그 감각을 가장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 2018년 「내 친구 쭉쭉이」는 지각에 의한 감각, 몸에 대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내 안에 있던 나를 예술 활동을 통해 몸 밖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이자,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중심의 교육이 되었다.

앞으로도 유아들을 위한 무용 관련 프로그램은 움직임 활용의 내용과 방법이 예술에 기초하며 유아의 움직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요소에 관계가 형성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아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예술적 감각과 감성을 키우도록 함에 비중을 두는지, 유아 움직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유아 움직임 교육이 '기능' 중심 교육에서 '예술' 중심 교육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움직임을 통해 유아가 일상적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예술의 의미를 찾아가는 유아 움직임 예술교육이 필요하겠다(김영연, 함수경: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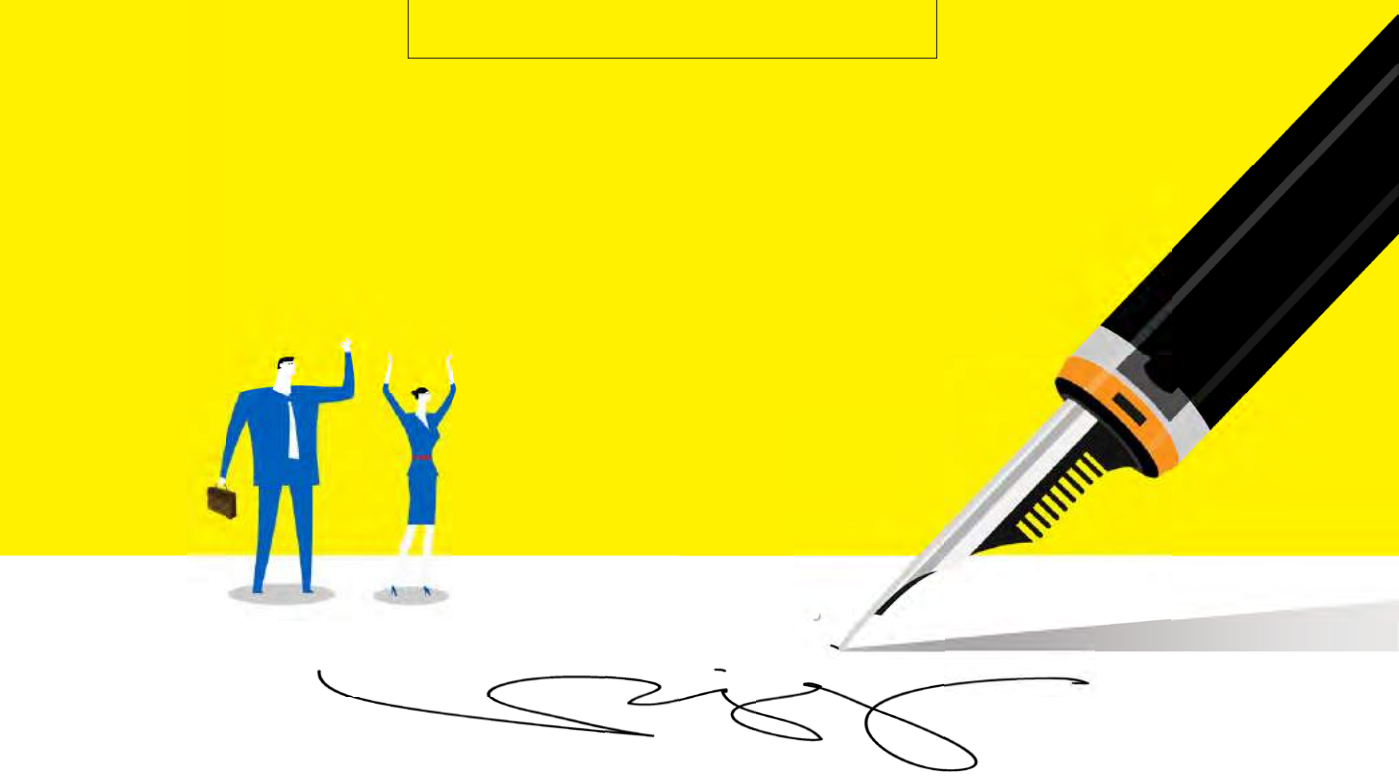
참고문헌

김영연, 함수경(2017). 한국무용교육학회, Vol.28 no.2 '몸으로 읽는 동화'를 통해 본 유아 움직임 교육의 예술교육적 의미.
박현주(2018). 2018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내 친구 쭉쭉이 사업 결과자료집.
http://www.gjfac.org/gjfac/template.php?midx=237&mode=view&intnum=3461
Dewey, John(1916/2011). DEMOCRACY AND EDUCATION. Simon & Brown.
송도선(2004). 존 듀이 경험교육론. 서울: 문음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연구.

예술인에게 필요한

표준계약서 활용법

글.
정성환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우리는 일상에서 수시로 계약을 하며 산다.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마시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쓴 후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날인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구두로 하는 계약부터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계약, 약관 형식의 계약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다양한 거래의 형태만큼이나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다.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표준계약서

계약은 종종 당사자 한 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기도 한다. 개인과 기업 간, 소비자와 사업자 간, 작은 규모 단체와 큰 규모 단체 간 거래 등 한 쪽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률은 국가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주요 표준계약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야	표준계약서
공연예술	창작 표준계약서, 출연 표준계약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방송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배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영화	영화근로계약서, 영화투자계약서, 영화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영화화 권리 양도, 각본, 각색)
출판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독점출판허락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게임	게임표준계약서(도급, 하도급, 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
저작권	저작재산권(전부, 일부)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만화	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매니지먼트), 공동저작계약서, 홍보만화계약서
미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작가와 화랑 간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 전속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2019년 4월 기준

모든 계약의 '원칙'이 되어주는 계약서

계약 당사자로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의 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견본계약서이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표준계약서 빈 칸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지에 어떻게 체크할지만 고민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내용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거래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내용 중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해당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내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자 원칙'과 '무방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물의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저작권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의 양도는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저작재산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표준계약서가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만약 해당 계약서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있다면 계약내용을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꼭 맞는 계약을 위해서는 수정도 필요

모든 경우에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거래나 계약 당사자에게 특수성이 있는 경우까지 수정 없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오히려 거래현실이나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옷가게에 가서 기성복을 사면 편하긴 하지만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번거롭더라도 재단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령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작가와 매수인 간 매매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저작권은 작가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작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까지 양도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이나 일방의 채무불이행 이외에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예: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해지 사유로 넣을 수 있다. 또 계약 상대방과 자신의 거주지 간 거리가 멀다면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표준계약서상 관할법원으로 되어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계약 체결 전후로 법률전문가의 검토 권장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다 보면 문제점을 간과할 수도 있다.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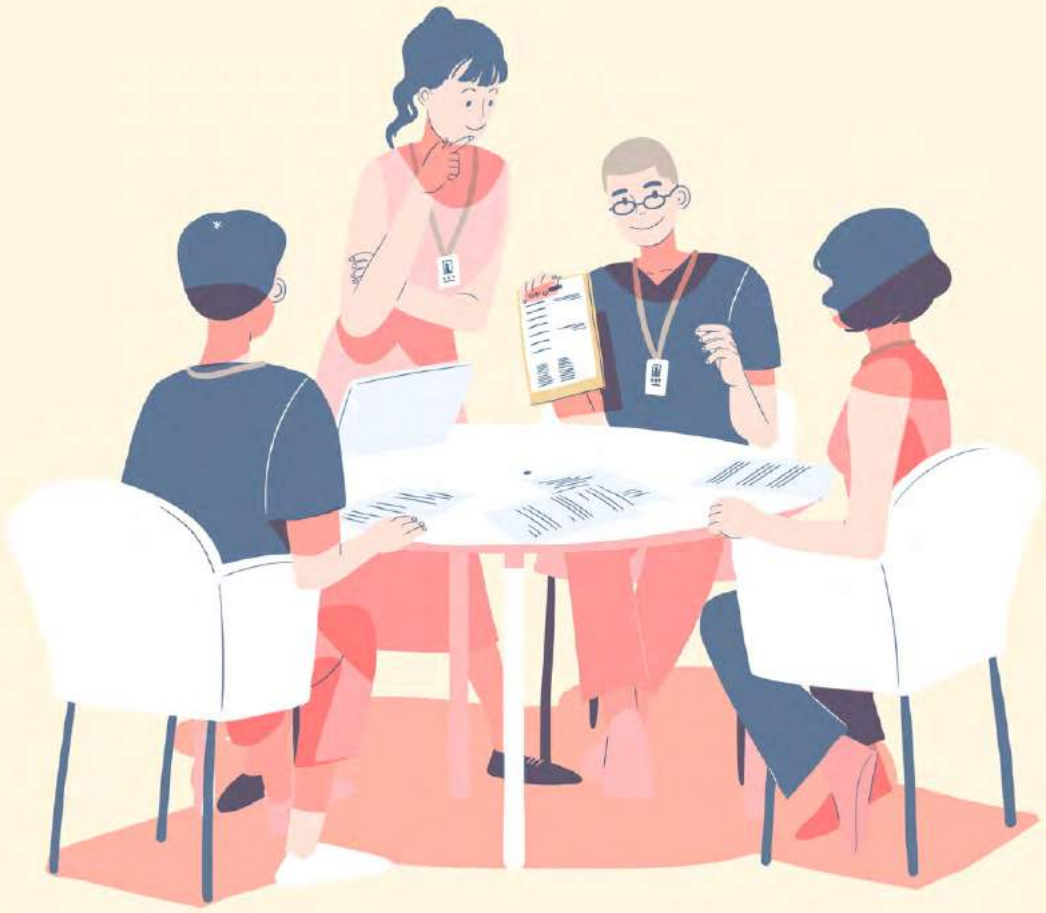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일일이 유불리를 따져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창작의 고통에 더해 '계약의 고통'이라는 짐을 하나 더 얹는 것임에 다름없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 체결 전후로 계약 관련 실무자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하여 표준계약서 양식·해설과 판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에서도 예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1800-5455**

예술인이 알아두면 좋을 저작권 상담 사례

글. 한민열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부산문화재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지는 햇수로 3년이 됩니다. 그간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다소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상담 건수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상담 내용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문제점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아져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답을 찾아야만 하는 일도 있는 법이겠지요. 아래에서는 예술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두세 가지 사례를 서술할까 합니다.

상담사례 ❶. 폰트 저작권 위배

공연 포스터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에 위배된다며 폰트 디자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된 폰트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였으며, 무료로 사용하는 폰트의 제한사항(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을 확인하지 못 하고 사용한 듯합니다. 사용한 폰트는 두 가지였으며 글자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우선 판례를 인용하여 보면, 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한 서체 파일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서체도안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9582)

위 사례를 살펴보면, 서체도안만을 사용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특허법원(2017나2424) 사건으로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 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겁부터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❷. 불합리한 계약 파기

- 영화 배급사와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불합리함을 느꼈을 때의 파기 방법
-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추후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여 녹음본을 영화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기능을 의뢰 받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말로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다만 구두(말) 계약 시 추후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로서 합치된 의사가 있으면 강력한 법적구속력이 생깁니다. 특히, 문서로 된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문서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폭행 내지 협박), 착오를 당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내용이 상당히 불공정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용하기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할 때 불공정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가 보았을 때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인터넷으로 진정 접수 가능),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 민사적으로 소제기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몰래 녹음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3.8981) 취지는 '음성권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❸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사례 또는 소액의 금원을 받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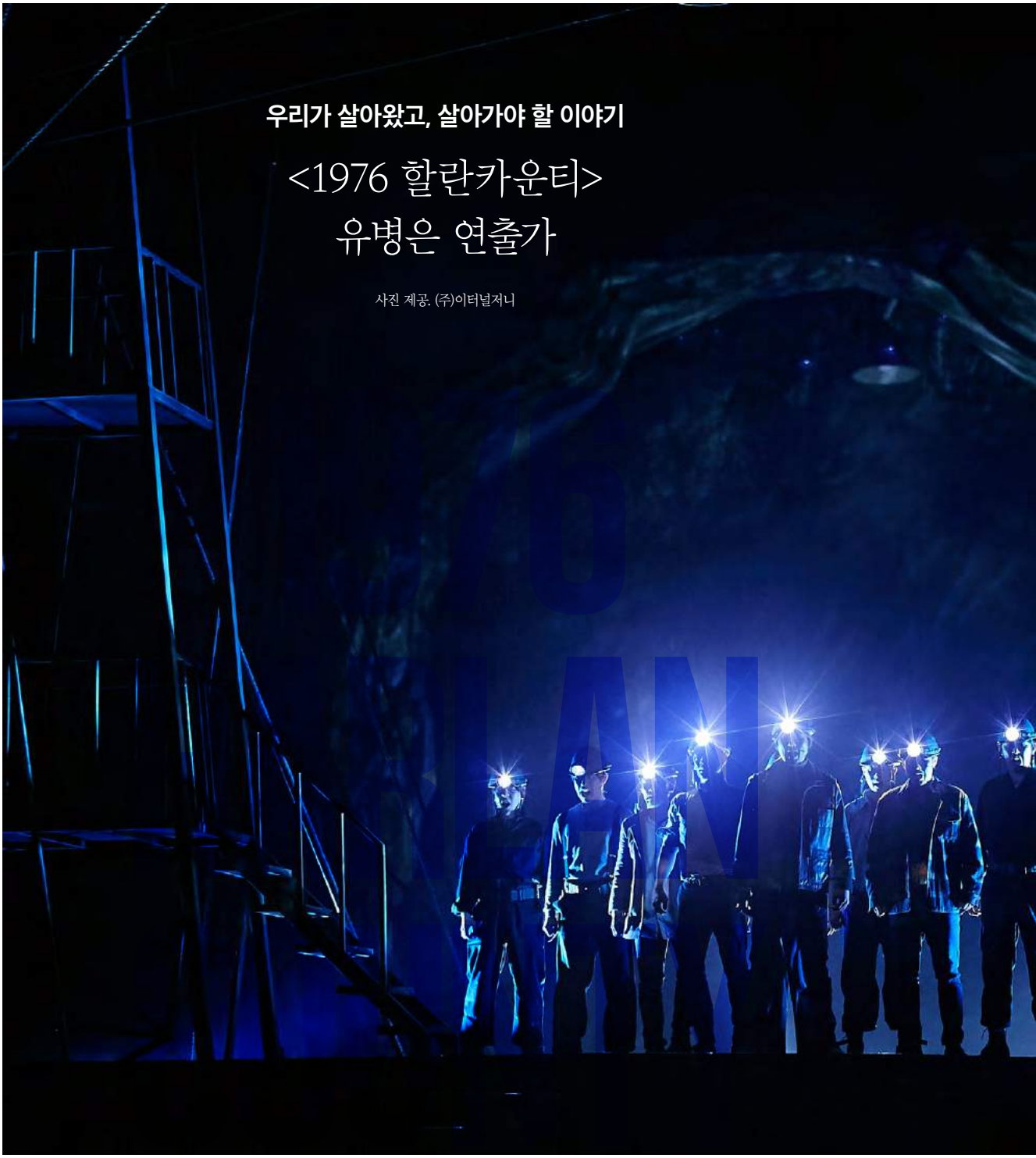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속하여 '법률구조 안내' 내지 '법률서식/상담사례'를 클릭하면 절차 내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법원판결과 동일)의 효력이 있어 권리 구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게으른 자에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을 방문하여 사례와 분쟁해결 절차를 알아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법률신문',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서식, 상담사례, 구제절차, 판례 등을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로서 합치된 의사가 있으면 강력한 법적구속력이 생깁니다. 특히, 문서로 된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문서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요 관련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
대법원 www.scou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이야기

<1976 할란카운티> 유병은 연출가

사진 제공. (주)이터널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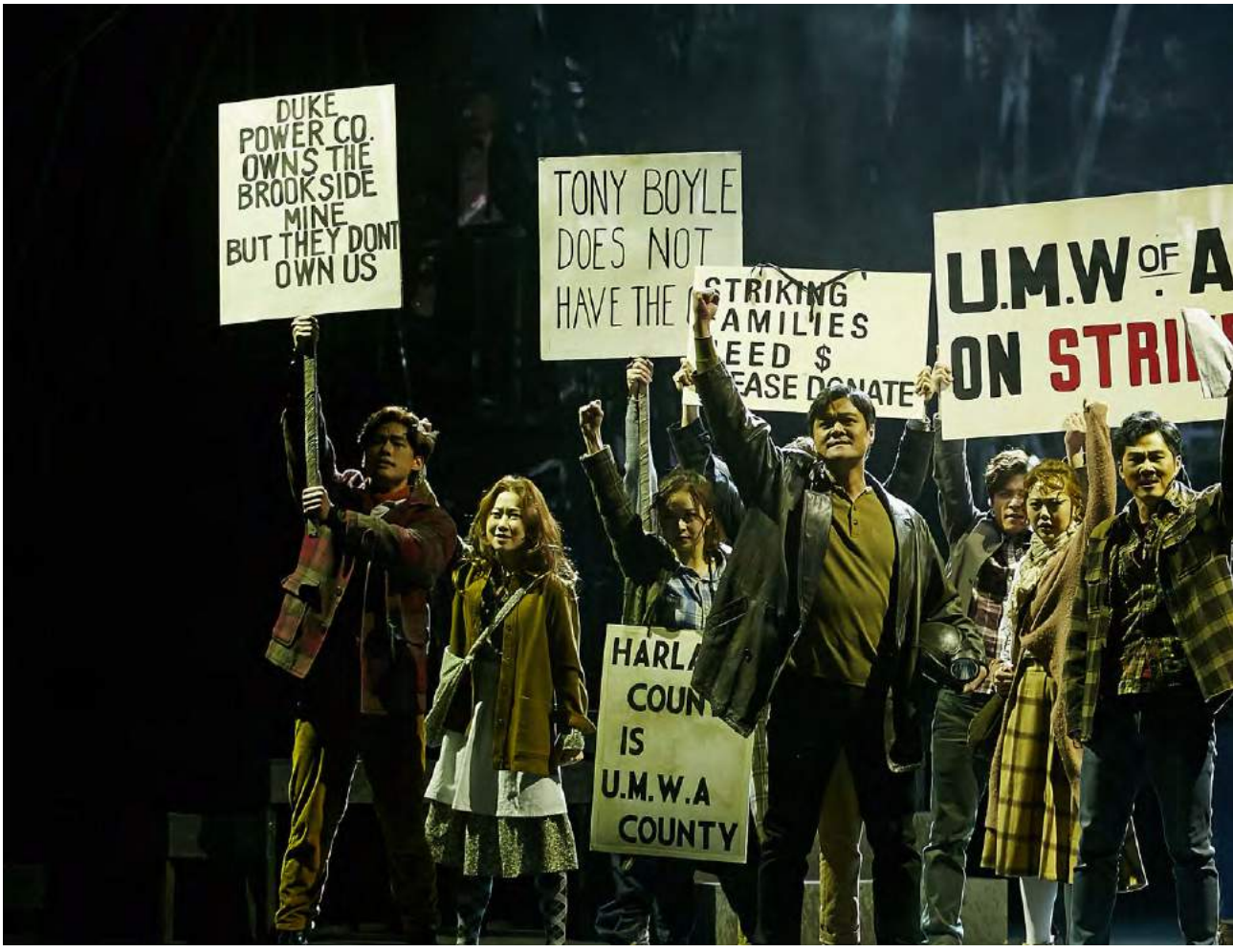
1976년, 미국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켄터키 주의 작은 마을 할란카운티에서 광부들은 광산 회사의 횡포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하며 회사와 대립한다.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최우수작품상에 빛나는 바바라 코플의 다이렉트 시네마 <할란카운티 USA>의 내용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모티프로 한 뮤지컬이 부산에서 재탄생했다. 다른 시공간을 빌려왔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뮤지컬로써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 그, 부산의 청년 연출가 유병은을 만나보았다.

연출가 유병은 프로필

작 뮤지컬 <더 언더독>,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연극 <더 게임>

연출 <올슉업>, <꽃보다 남자>, <체스>, <로미오와 줄리엣>, <1976 할란카운티>

무술감독 <삼총사>, <프랑켄슈타인>, <조로>, <뱀파이어>, <로빈훗>


DUKE POWER CO. OWNS THE BROOKSIDE MINE BUT THEY DONT OWN US
TONY BOYLE DOES NOT HAVE THE
STRIKING FAMILIES EED $
U.M.W OF A
ON STRI
HARL
COUN
IS
U.M.W.A
COUNTY

안녕하세요. <공감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그리고> 독자 여러분. 저는 글쓰고 연출하는 부산 청년 연출가 유병은입니다.

≫ 1976 할란카운티 공연장면

언제부터 뮤지컬(공연예술) 분야에 몸담으셨으며, 매력을 느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18살에 PSB(지금의 KNN) 연기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처음 배우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극단 수레무대 김태용 선생님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극단 생활을 시작했죠. 그로부터 벌써 20년이나 흘렀네요.

연출가님께서 직접 소개해주시는, <1976 할란카운티>는 어떤 작품인가요?

<1976 할란카운티>는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가야 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76 할란카운티>가 다른 공연예술 분야가 아닌 '뮤지컬'로 제작되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재만 볼 때는 역시 다큐멘터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상업적인 도구로서 뮤지컬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의 힘은 너무 무거운 이야기도 지루하거나 심각하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1976 할란카운티>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화보다는 이 공연을 만들면서 든 확신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든 할 수 있구나!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된 작품이라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1976 할란카운티> 제작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청년연출가 제작지원사업 공고를 접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거쳐 최종 쇼케이스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

고 쇼케이스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원작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서울에서 공연하고 있지 않겠죠? 도움을 주었다기보다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합니다.

<1976 할란카운티>는 부산에서 서울로 진출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게 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만, 저는 부산에서 공연을 선보일 때부터 이 공연을 지역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한국은 너무 작잖아요. 굳이 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에게 부산과 서울은 같은 한국일 뿐입니다.

<1976 할란카운티>의 한 장면을 예비 관객들을 위한 맛보기로 소개해주신다면?

1막은 인물 소개와 서사 위주, 2막은 빠른 전개와 멋진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커튼콜 인사도 극의 연장선으로 끝까지 감동이 이어졌으면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연출가님께서 관람한 다른 뮤지컬 작품 중 독자들이 관람하면 좋을 작품을 몇 편 꼽아주신다면?

문화예술은 사실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에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공연은 영국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영국의 광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죠.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화도 있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인 만큼 공연장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좋은 공연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공연장은 우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시야 확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앉아서 보더라도 잘 보여야 하고 잘 들려야 합니다. 접근성도 중요한 요인이구요. 관객

≫ 1976 할란카운티 공연장면

은 손님이고 손님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부산에 '드림씨어터'가 개관한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드림씨어터 덕분에 부산에서도 <라이온킹>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한편으로 부산 관객들이 드림씨어터 작품만 찾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드림씨어터 외 다른 극장에 올라가는 공연들도 그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부산에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공연을 만들고 공연하는 예술가들이 드림씨어터의 상업극에 밀려 더 외면받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부산 시민들도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부 또는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는 예술 관련 제도 및 사업에 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수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공연은 한 번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함이 있고 처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을 기약하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좋은 공연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예술가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조언? 격려?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보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 부산에 살고 있으니 우선 부산 청년예술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산의 문화 예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려봅시다! 파이팅!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해 들려주십시오.

우선 <1976 할란카운티>를 좀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수정해야 할 것도 보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꼭 만나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작품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 또한 부산에서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 준비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공감 리뷰

042 이주 여성 서발턴(subaltern)들의 무대 위 반란
— 한국말을 더듬거리며 무대로 올라온 여인들

부산
제37회
연극제
2019

이주 여성 서발턴(subaltern)[1]들의 무대 위 반란

한국말을 더듬거리며 무대로 올라온 여인들

글.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사진 제공.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2019 부산연극제를 관람하다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다. 10개의 극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도 그녀들은 각 극단의 작품 귀퉁이를 비집고 무대 위로 오르고 있었다. 더구나 그녀들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비단 조연이 아닌 현대 연극의 주연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을 그룹핑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그 역할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유 역시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말을 더듬거리며 등장했다. 이상한 억양의 한국어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으며, 그 억양을 감추면서 더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하는 압력 때문일 것이다. 그녀들은 이미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삶 자체가 순탄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들은 하나같이 연극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섞여 사는 존재로 설정되었으며, 하나같이 외로운 존재로 그려졌다. 남편이 있고, 애인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기지우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혼자였다. 그것은 그녀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그녀들을 둘러싼 다수,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예감은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1) 지배계층의 헤게모니에 종속되거나 접근을 부인당한 그룹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피식민지인 등 주변부적 부류가 속한다.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 살림지식총서 248, ㈜살림출판사, 2006)

강석봉 베이커리

베트남 억척어멈 '박순미'

<강석봉 베이커리>의 '박순미'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으로, 세탁소를 경영하는 공달호에게 시집 온 여인이다(안윤주 분). 매우 강한 억양으로 한국어를 밀어내듯 치켜 올리며, 그 억양만큼 뾰족한 걸음으로 빵집을 오가는 여인이다. 생활력이 강한 듯, 다소 허술해 보이는 공달호의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돈'을 모으려는 의지를 다지는 억척어멈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박순미의 극적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녀는 강석봉의 인간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 예로 임신을 한 그녀가 쓰러지고 동네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갈 때 강석봉만 '그녀-박순미'를 외면하는 장면은, 초심을 잃고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상실한 강석봉의 마음과 그로 대표되는 동시대인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 될 수 있었다.

장면의 역할을 떠난다고 해도, 이러한 박순미의 등장은 신선했다. 그녀는 자칫하면 무거워질 수 있는 극적 분위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겸했는데, 이러한 역할에는 뒤뚱거리는 몸짓과 함께 특유의 어눌한 억양이 단단히 한몫했다. 한국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개성을 잃지 않고 희한하게 울려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는 이웃이라는 점을 간헐적으로, 그러나 자극적으로 상기시키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새 다정한 이웃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욕심 많고 서로를 질시하는 남남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 작품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이 또 다른 관찰자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버려지고 버려지는 여인 '에이코' 아니 '정일해'

외국인 이주 여성의 또 다른 이미지는 극단 누리에의 <여자 이발사>에서도 어른거린다. <여자 이발사>는 이주 여성의 삶과 행색을 연극의 정면으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일본에서부터 한 남자를 사랑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미혼남편'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여인의 국적이 일본이었기에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여인들이 겪는 수난과는 다른 궤도를 그리며 한국 관객들에게 버려진 여인의 사연과 심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사연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괴롭히는 주변 무리들의 존재감을 상기시킨다. 사랑하는 척했지만 현실이 바뀌자 여인을 버린 남자, 여인의 아들만을 되찾기를 고집하는 시댁 식구들,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명목으로 이 땅의 여성들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군인들, 도움을 얻고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여인을 다시 버려야 했던 마지막 남자가 그들이다.

홀로 이국땅에 남은 이 여인에게는 이 모든 이들이, 그 숱한 남성들이 무서운 이웃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그 옛날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분신들이라고나 할까. 극단 누리에는 <여자 이발사>를 통해 홀로 남은 여인의 간난신고를 보여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으며,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폭행자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닮은꼴의 두 '복녀'와 우리들의 수난

배우창고에서 바라본 이주 여성이 한 남자의 변모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자 관찰자였고, 누리에에서 상정한 이주 여성이 한국인의 가혹한 내면을 들여다보여주는 핵심적 대상이자 수난의 주체였다면, 극단 여정의 '자르갈'은 이 땅의 여성들이 함께 걸어온 길과 닮은꼴의 삶을 살았던, 동일한 운명의 존재였다.

자르갈은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한국 남자 '덕구'에게 시집 온 몽골 새댁이다. 이 새댁은 젊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억척스럽고 깍쟁이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처음에는 남에게 절대 손해 보지 않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참지 못하는 캐릭터로 이해된다. 실제로 자갈치 시장을 돌아다니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박복녀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과 처지는 이러한 평가에 합치되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의 손찌검에 얼굴에는 상처와 그늘이 가실 날이 없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다. 가정 폭력을 신고할 수 없으며 몽골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그녀의 주장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그녀가 돌아갈 경우 몽골의 가족을 건사할 수 없으며, 남편이 잘못될 경우 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작가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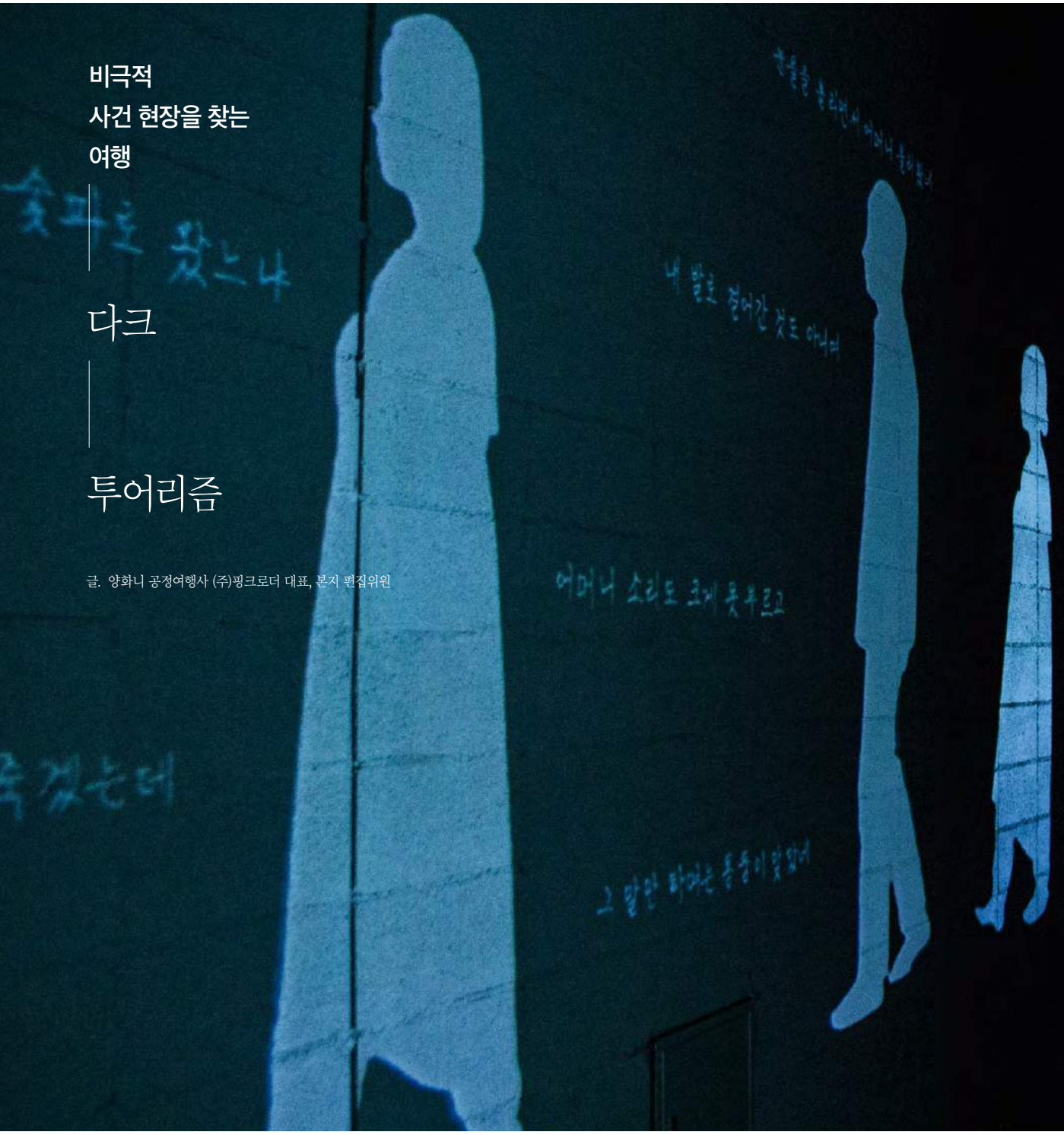
리뷰 이야기

<복녀씨 이야기>는 자르갈의 처지를 통해 남성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받는 여성들의 억압과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슬쩍 그녀의 한국적 복사판인 '박복녀'의 이야기를 겹쳐놓는다. 기지촌 여성으로 일찍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복녀는 비록 국적은 한국인이었지만 이 땅을 점령한 이들에게는 역시 이국인이나 다름없는 상대였다. 주류 계급에서 소외된 인물이었던 그녀들, 그러니까 자르갈과 복녀는 자신들이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금방 이해한다.
두 사람의 유사성은 국적(종족적 이질성)만이 차별과 수난 그리고 박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따지고 보면 <썬샤인의 전사들>에서도 자국인이면서도 결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지 못했던 여인(아이)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가. 해녀 '명이'나 위안부 '막이'가 그러하고 불우하게 죽은 의대생 '시자'와 그녀의 동생의 삶이 그러하며, 나아가서는 작가 한승우의 어린 딸도 그러하다. 그녀들은 여인들이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가난하고 권력에 짓눌린 이 땅의 아이이자 누이였고 불행했던 여인이었으며 그래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의 인물들이었다.

2019년 부산연극제에서 각 극단들이 내외국인으로서 서발턴 여성을 다수 등장시키고 그녀들의 비중을 높여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데에 공을 들인 이유는, 아마도 이주 여성으로서의 외국인 서발턴들이 결코 이 땅의 여인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녀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감추고자 했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그 치부는 우리-한국의 내부에 도사린 문제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주 여성 서발턴들의 등장(방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녀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비유하게 만든다. 그녀들의 삶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관찰하고, 그녀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상기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각종 조건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녀들-외국인 서발턴들'의 초조한 안색은, 불운과 고난의 역사적 현재와 과거에서 생명과 정조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조건까지 위협받았던 이 땅의 여성들(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극적 색채가 약간 다르고 삶의 아이러니를 더욱 심각하게 느낀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녀들과 우리들은 다르지 않다. 국적과 인종이 다르고, 언어와 사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녀들과 우리들은 결국 하나의 고통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와 여성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지고 강요된 계약이 존재하며, 아직도 그 계약이 사라지지 않은 채 이곳을 맴돌고 있는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계약과 억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분명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녀들은 우리들의 또 다른 자화상임을 어떠한 의미로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2019년 부산연극제에서 우리는 가면을 쓴 또 다른 우리를 본 셈이다.

B-Side

052 비극적 사건 현장을 찾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비극적 사건 현장을 찾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글. 양화니 공정여행사 (주)핑크로더 대표, 본지 편집위원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최근 강원도 산불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였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재난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총동원되어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이후 구호물품과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강원도로 향했고, 강원도 피해지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시선들이 생겼다. 그중에 '강원도로 여행 가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여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자는 내용이다.

≫ 증산왜성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마음에 새기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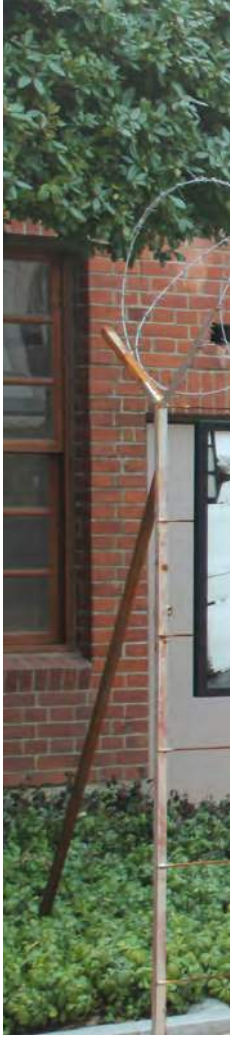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하는 여행을 '다크(Dark) 투어리즘', '블랙(Black) 투어리즘', '그리프(Grief) 투어리즘'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역사교훈여행'이라 부른다. 가깝게는 강원도 산불 재난부터 일제강점기 위안부 역사관까지 우리나라에도 그 흔적을 찾아 여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해외에는 1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부산은 개항과 함께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다크 투어리즘이 가능한 장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산복도로와 연계한 피란수도 여행 등 6.25전쟁 이후 만들어진 하꼬방 형식의 피란민들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힘써야 함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심어주게 된다.

임진왜란 항거의 역사가 남은 성터,
일제 강점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곳

대표적인 부산의 다크 투어리즘 공간을 시대별로 소개해보면, 임진왜란 때는 조선의 성을 무너뜨리고 일본식으로 만든 왜성 터가 남아있다. 좌천동의 부산진성이 있었던 증산왜성, 기장의 죽성왜성, 구포에 있는 구포왜성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수탈당했던 상황을 전시하고 추모하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도 있다. 해외로 강제징용된 사례도 있지만 국내 조선인들을 기장 구리광산서 강제노역시킨 기장일광(닛코)광산도 있다. 가덕도에는 마을 전체를 요새 사령부로 구축했던 외양포가 있으며, 현재도 포진지터와 군부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근대문화유산이 된 근대식 건물 부산근대역사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은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당시 상황을 역사관에 전시된 전시물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다.

≫ 외양포



아름다운 야경 뒤에 숨겨진
6.25 피란수도 부산의 이야기

6.25전쟁과 함께 시작된 피란행렬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은 전국에서 모여든 피란민들로 모든 시가지가 포화 상태였고,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 산복도로라는 형태의 주거생활권을 갖게 되었다. 전쟁의 여파로 넉넉한 삶을 꿈꿀 수 없었던 피란민들은 험한 산에 직접 돌을 캐내어 집을 짓게 된다. 그 당시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인 아미동 비석마을은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집들이 보존되어 있다. 구석구석 담벼락에, 계단에, 댓돌에 비석들이 공존하는 삶을 간직하고 있다. 고개 너머 바로 이어지는 감천문화마을은 피란민들이 구축한 계단식 집들이 장관을 이룬다. 수정동, 범일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지어진 열악한 환경의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요즘은 오히려 이러한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러 오기도 한다.

우암동 소막마을에도 소 마구간에 집을 짓고 살았던 피란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명절에 냉면 대신 실향민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음식으로 밀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재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범일동 매축지마을에도 마구간에 터를 잡고 살아간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

≫ 산복도로

≫ 임시수도기념관

우리와 가까운 곳을 거닐며
되돌아보는 기억해야 할 역사

가파른 계단과 구불구불한 도로가 특징인 산복도로는 6.25 당시의 삶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당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은 곳을 꼽자면 임시수도기념관 뒤뜰의 전시관을 들 수 있다. 피란을 온 사람들이 피복전선으로 만든 가방, 판자로 지어진 집, 천막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재 등 당시의 상황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옛 경남도청이었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과 임시수도기념거리 앞 전차까지 그 일대만 돌아보아도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다크 투어리즘 코스가 완성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역사 교육의 현장을 다녀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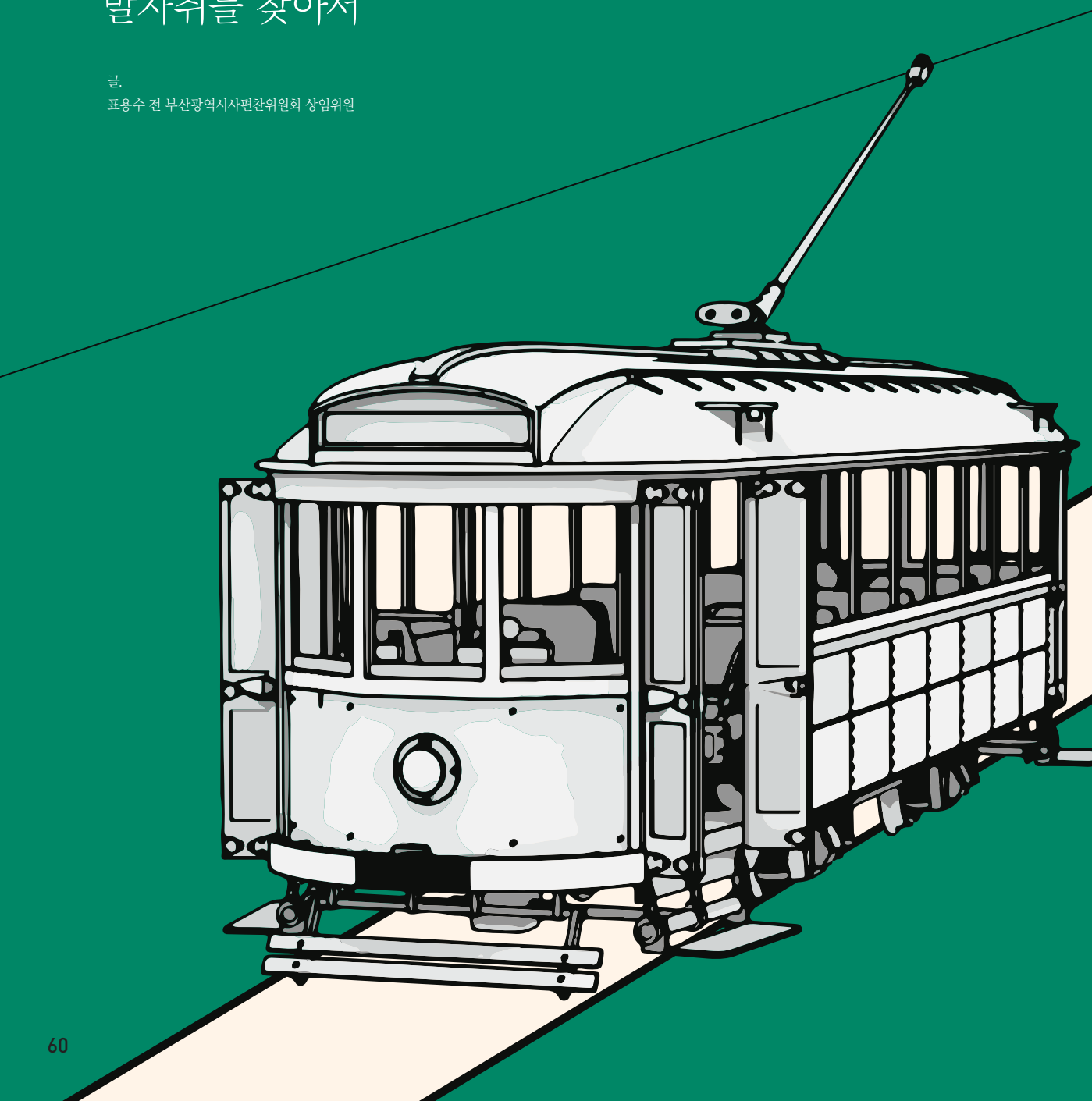
060 **니, 그거 아나?** | 부산 전차 운행의 발자취를 찾아서

066 **누꼬?** | 부산을 빛낸 근대역사의 선각자 조선 철도왕 박기종

070 **거 가봤나?** | 문현동 철길마을

부산 전차 운행의 발자취를 찾아서

글.
표용수 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전차(電車)는 전기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궤도 위를 달리는 차량으로, 부산에 처음 등장한 근대적인 교통수단이다. 전기(電氣) 도입은 1885년 말 경복궁(景福宮) 내 건청궁(乾淸宮)에서 점등식을 거행한 이후, 1899년 5월 서대문~종로~동대문~홍릉(청량리) 간 전차가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쇠막대기로 전기를 잡아먹고 달리는 괴물의 부산 출현

부산의 전기 도입은 1901년 9월 12일 설립한 부산전등주식회사가 1902년 4월 지금의 중구 광복동거리에 가로등을 밝히면서부터이다. 전차는 1909년 6월에 설립한 부산경편궤도주식회사가 12월 2일 부산진[1]~동래남문 간 경편궤도(폭 60.96㎝) 4哩 19鎖(6.7㎞)[2]를 준공하여 경편열차(증기기관차)가 운행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12월 19일에는 동래남문~동래온천장 입구까지 선로[1哩 76鎖(2.82㎞)]가 연장 운행되었다. 1910년 10월 18일 창립한 한국가스전기주식회사가 12월 28일 부산전등㈜와 1911년 12월 28일 부산경편궤도㈜ 영업권을 인수하였다. 1912년 3월 20일에는 궤도 폭[2呎(60.96㎝)→ 2呎 6吋(76.2㎝)][3] 개량공사를 착공하여 4월 20일 부산진~동래남문 구간이 준공되고, 7월 11일에는 동래남문~동래온천장 입구 구간이 준공되었다.

전차사업은 1913년 3월 29일 조선와사전기주식회사로 개칭과 함께, 12월 26일에는 경편열차와 겸용할 수 있는 궤도 부설권 허가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1915년 1월에 착공한 부산진~초량, 초량~부산우편국 구간이 준공되고, 10월 23일에는 부산진~동래온천장 입구 간 선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10월 31일 전 구간(12.8㎞)이 개통되었다. 11월 1일부터 전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부산에 전차시대가 열렸다.[4] 1916년 3월부터는 전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부산에 전차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신기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전차를 직접 눈으로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차운행이 여러 번 멈추어서는 등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인근지역의 김해·양산 사람들까지 전차를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들었다고 한다. 처음 전차가 달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공중의 전기 케이블에서 방전된 불빛이 번쩍번쩍 나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 불빛을 번갯불 또는 도깨비불로 생각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부산사람들 눈에는 전차가 '쇠막대기로 전기를 잡아먹고 그 힘으로 달리는 괴물'로 비쳐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차를 두고 '전깃불 잡아먹고 달린다'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한다.

---

1) 여기서 말하는 '부산진'은 지금의 부산진시장 부근을 말한다.
2) 당시 거리로는 1리(哩)는 1.6㎞이고, 1쇄(鎖)는 약 16m로 길이의 단위이다.
3) 척(呎)은 영국 파운드법 길이 단위와 같은 1피트로 약 30.48cm. 촌(吋)은 미국 길이 단위인 인치와 같은 1인치로 약 2.54cm.
4) 근대도시 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81년 독일 베를린이고, 동양은 1894년 일본 교토(京都)에 등장한 것이 처음이며, 우리나라는 1899년 서울에 전차가 개통된 것이 처음이다.

≫ 동래 온천 전차정류소 앞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뮤지엄 이미지 제공

≫ 동대문 앞을 지나가는 전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뮤지엄 이미지 제공

한 해 승객만 200만 명, 부산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

전차가 처음 등장했던 초기에는 일정한 정차장이 없었다. 굳이 정거장을 정해놓고 전차가 다닐 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무데서 손을 번쩍 들어 전차를 세우고 탈 수 있었고,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전차 개통 이후 조선와사전기㈜는 동래온천장에 직영 온천욕탕 경영과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해 부산의 번화가인 장수통(현 광복동)을 거쳐 서쪽으로 경유하는 전차선 건설을 추진했다. 1916년 9월 22일 대청정선(大廳町線)[부산역~대청동~보수동~토성동] 개통을 시작으로, 1917년 12월 19일에는 장수통선(長手通線)[부산우체국~광복동~토성동]이 개통되어 부산의 전차노선 총 연장은 19.5㎞가 되었다. 1918년도 부산부의 인구가 62,567명인 데 반해, 한 해 동안 전차를 이용한 승객수는 2,033,027명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약 33번 전차를 이용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사실은 전차가 부산사람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24년 9월에는 부산진에서 부산역 사이의 철로가 복선화되었다. 1925년 9월에는 보수동에서 경상남도청을 거쳐 부용동까지 선로가 연장되었고, 1927년 10월 말에는 동래온천장까지 연장되어 운행하게 되었다. 1928년 9월에는 대신정선(大新町線)[부용동~대신동~공설운동장]이 연장 개통되었다.

조선와사전기㈜는 전차사업에 많은 투자로 전차노선의 연장 개통과 함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수익 창출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을 등한시하였던 것 같다. 전차 운행에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인명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회사 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1918년 여름에는 지금의 부산진시장 근처인 영가대(永嘉臺) 언덕길에서 좌천동으로 내려오던 전차가 한국인 어부를 치어 현장에서 즉사시켰는데, 일본인 기관사는 그냥 전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버렸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변함없는 회사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그간 울분이 쌓여 있던 민중들은 영가대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전차로 몰려갔다. 로프를 전차에 매어 여러 사람이 언덕 아래에서 당겨 전차가 굴러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남대문 전차 선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뮤지엄 이미지 제공

≫ 전차표, 전차 보통 승차권, 전차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뮤지엄 이미지 제공

노선 개량 및 차체 개조를 통한 제2의 전차 도약의 시대

1931년 10월에는 전 노선의 전차 궤도[2呎 6吋(76.2㎝)→ 3呎 6吋(106.68㎝)]를 개량하는 동시에 차체의 개조를 통하여 제2의 도약을 꾀했다. 1933년 8월 9일에 범일정선(凡一町線)[부산진역~범일동(구 교통부)]이 신설되었고, 1934년 7월에는 부평 공설시장통 간 선로[보수동~토성동]가 폐지되었으며, 9월에는 토성동에서 공설운동장 간 선로가 복선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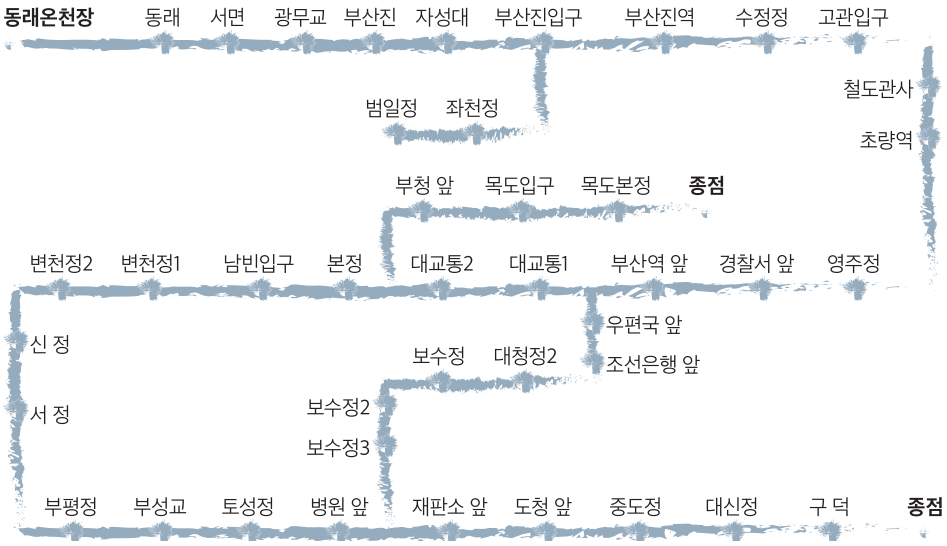
1935년 2월 목도선(木島線)[대교동~남항동]이 복선 개통되어 영도대교를 지나 현재의 남항동시장까지 운행되었다. 1935년 당시 시내 전차노선 총 연장은 21.715㎞이다. 1937년 3월에는 조선와사전기(주) 등 6개 전기회사가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로 합병하였다.

1944년 무렵에는 소화통선(昭和通線)[구 시청앞~남포동~토성동]이 신설되고, 장수통선(長手通線)[부산우체국~광복동~토성동]은 폐지되었다. 1940년 초까지는 부산진역에서 부산진시장 앞을 지나 서면로터리를 거쳐 운행되다가, 1943년 말부터는 부산진역에서 좌천동을 거쳐서 구 교통부를 지나 과선교(1943년 건설)를 통과하여 서면로터리로 운행되었다고 한다. 광복 이후 부산의 전차사업이 우리 손에 넘어오면서 전차 61대 중 운행 가능한 전차는 고작 38대에 불과하였고, 노후 차량의 빈번한 고장으로 최대의 경영난을 겪어야만 했다. 1946년 5월 29일에는 성남전기(주)를 합병하여 남선전기주식회사로 개칭하였고, 1953년 무렵에는 대청동선[대청정선]이 폐지되었다.

1952년 6월 교통부는 서울과 부산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중고 전차(1927년 제작) 40대를 도입하여 서울(경성전기)과 부산(남선전기)에 각각 20대씩 배정하고, 1955년에는 ICA(국제협력청) 원조자금으로 미국산 전차 53대를 도입하여 서울에 34대, 부산에 19대를 배정하였다.

1957년부터는 서면을 기점으로 3개 노선(서면~공설운동장, 서면~영도, 서면~동래온천장)이 운행되었다. 1961년 7월 1일 전기 3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한국전력주식회사(한국전력공사 전신)로 통합하여 서울과 부산의 전차사업을 인수하였다. 1963년 5월 30일에는 일본[富士車輛(株)]에서 제작한 전차 10대를 도입하여 서울에 8대, 부산에 2대를 배정하였다.

1938년도 전차영업 노선도



자료: 釜山府, 『釜山案內圖』, 1938, 11. 재작성.

1962년 전차영업 노선도

○ 기종점 및 승환정차장
◎ 차고
▬ 영업선

자료: 韓國電力公社,『韓國電氣百年史』下, 1989, p.1366. 재인용.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야외 광장에 있는 부산 전차

버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차

1966년에는 서면~공설운동장 노선이 폐지되고, 온천장~공설운동장 노선과 공설운동장~영도 노선을 운행하였다. 이 무렵 계속되는 적자와 선로의 노후화로 인해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는 전차 사업의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성립되지 못하였다. 결국 1968년 제51차 이사회에서 전차사업 폐지를 결의하게 되었다. 1968년 5월 17일에 전차 운행 폐지에 대한 교통 대책을 담은 부산시장 담화가 발표되었고, 5월 19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5월 20일 폐지되었다(서울은 1968년 11월 30일 폐지됨).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전차는 새롭게 등장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추억과 애환을 간직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종점과 정차장이 있었던 대신동 전차종점(동대신동 문화아파트 앞 인도), 동래온천장 전차종점(온천장교차로 부근 인도), 영도 전차종점(남항동사거리 인도), 동래 전차정차장(부산은행 수안동지점 앞 인도)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옛 전차의 흔적을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부산시민 대부분이 전차가 운행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50대 후반 이후 장·노년층은 아련한 추억으로 회상하기도 한다.

1969년 2월 23일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객차 1량과 궤도 일부를 동아대학교에 기증하였다.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내에 보관되어오다가, 2010년 12월 19일에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옮겨와 야외에 레일을 깔고 설치하여 2011년 7월 2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동아대학교에 있는 「부산 전차」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494호(2012. 4. 18.)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이 전차는 미국 신시내티차량회사(Cincinnati Car Company)에서 1927년 제작한 궤도차량으로 미국 애틀란타 시에서 운행되었다가 1952년 원조물자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다.

참고문헌 표용수, 『부산 전차 운행의 발자취를 찾아서』, 선인, 2009.

부산을 빛낸 근대역사의 선각자 조선 철도왕 박기종

글. 이공자 박기종기념관 해설사

중구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을 타고 산복도로 망양로에 내리면 오른쪽에 아담하게 꾸며진 박기종기념관이 있다. 조선 말 근대역사의 주요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부산을 빛낸 선각자인 철도왕 박기종(1839~1907)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곳으로 2017년 5월 24일 개관하였다.

박기종 선생이 키운 조선 근대화의 꿈

박기종 선생은 한국 최초의 민간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설립한 인물로서 조선의 철도왕으로 평가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근대 기업사와 근대 교육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할 기업가요 교육가이다.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난 선생은 젊은 시절 초량왜관시대 쓰시마와의 무역을 전담하던 8명의 상인 집단인 동래 팔상고(八商賈)에 드나들며 일본어와 상업을 배웠고 적지 않은 돈을 모았다. 지금의 중앙동 앞바다에서 논치어장(漁場)을 경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 돈은 후일 한국 최초 민간철도회사와 조선에서 세 번째이며 한강 이남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사립부산개성학교를 설립하는 밑바탕이 된다. 선생은 1869년(고종 6) 동래부 소통사(小通事: 하급 통역관)로 임명되어 1871년까지 거제도 옥포의 업무를 담당하는 옥포 통사로 근무하였으며, 일본어를 잘한 덕분에 1876년(고종 13) 김기수를 단장으로 한 제1차 수신사 파견 때 통역사로 일본을 방문하였고, 4년 후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도일할 때도 통역사로 동행하였다.

선생은 이 두 번의 일본 방문을 통해 조선소, 제철소, 포병창, 학교 등 신문명(新文明) 시설을 시찰하면서 일본의 근대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는 조선 근대화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 꿈은 후일 근대식 기업 설립과 근대식 학교 설립, 철도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부하철도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철도회사

선생의 철도 건설에의 도전은 1898년(고종 35)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 설립으로 시작된다. 1898년 외부참서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건설에 뛰어들어 윤기영과 함께 '국가를 부강케 함은 상무가 제일이요, 상무를 흥왕케 함은 철도가 제일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부산항에서 하단포까지 화물 수송을 주로 하는 경편철도(經便鐵道) 건설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노선의 중간에 위치한 대티고개 공사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고 자금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내 공사는 중단되고 만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당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가 힘과 기술, 자금력을 앞세워 조선 전역의 철도부설권을 찬탈해가는 시대 상황하에서 부하철도회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창설된 민간철도회사로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조선인에 의해 기획된 최초의 철도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생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1899년 홍긍섭, 이규환 등 국내 유지들을 규합하여 만든 대한철도회사를 설립하여 경원선과 함경선의 부설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착공기한을 넘겨 권리가 만료된 프랑스의 경의철도 부설권까지 획득하면서 다시 철도 건설에 나서게 된다. 이때 선생은 경원, 경의 철도뿐 아니라 국내 철도지선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선 부설까지 외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원산에서 고성 금강산 입구, 공주에서 군산항, 전주에서 목포항, 대구에서 진주, 대구에서 강원도 간성 다섯 곳을 예정하고 경인, 경의, 경부선과 연결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이어진 철도 건설 의지

대한철도회사 설립을 통해 경성 이북의 주요 간선철도는 우리 손에 들어왔지만, 경인과 경부 양선이 일본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수중에 있는 이 양선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900년 4월 철도원을 궁내부에 직속화하였다. 철도원 총재로 임명된 이용익(李容翊)은 선생의 대한철도회사가 갖고 있던 경원선과 함경선의 부설권도 일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도원 직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금 조달이 늦어지며 경의선 착공은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 틈을 노린 일본의 부설권 탈취 책동에 의하여 1903년 선생은 결국 경의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겨주게 되고 또 다시 철도부설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1902년 6월 영남지선철도회사(嶺南支線鐵道會社)를 세우고 허가받은 삼마철도(三馬鐵道: 창원, 마산, 밀양, 삼량진 간)의 부설권마저도 자금사정으로 인해 결국 포기하게 된다. 선생은 항상 그 나라의 중흥은 산업발전에 있다고 믿고 철도는 우리 손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자금부족과 이를 틈 탄 일본의 강압과 방해로 인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 박기종기념관

≫ 박기종기념관 내부

≫ 박기종 선생

한국 철도의 미래에 함께하는 선생의 꿈

1905년 선생은 변리공사라는 한직을 받기도 했으나 평생 계획하였던 철도 건설의 꿈이 좌절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다가 1907년 6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유해는 수정동 선산에 묻혔다가 부산진매축공사 때 산이 헐려 기장군 일광으로 이장되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1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산의 곳곳에는 선생의 많은 발자취가 남아있다. 조선 말기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의 힘과 자금 앞에 주권과 경제권을 빼앗기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상업의 부흥과 철도주권을 주창하며 근대기업을 일구고, 근대학교를 세우며, 우리 철도를 건설하려 했던 빛나는 노력을 기울인 선생의 발자취는 지금도 영웅적인 모습으로 남아있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근대의 꿈'을 실었던 기차는 한 번도 달려보지 못했지만, 선생은 부산을 빛낸 근대역사의 선각자로서 근대 기업사와 근대 교육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할 기업가요 교육가이며, 조선의 철도왕으로서 한국철도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영원히 달릴 것이다.

사진 속 세월로 남은 풍경

문현동 철길마을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전쟁 사진가 제임스 낙트웨이의 사진에는 철길 위에서 생활하는 한 가족을 다큐멘트한 작업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빈민촌을 기록한 사진이다. 철길 레일 옆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종이를 식탁 삼아 식사를 하고 있다. 위험천만의 생활이다. 아버지는 지나다니는 열차에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를 잃었다. 사는 환경은 최악으로 열악하다.

TV에서는 세계 곳곳의 이색적이고 신기한 철길마을들이 등장한다. 어떤 곳은 철길이 장터이다. 열차가 굉음을 울리며 들어올 때면 신속하게 차양막을 접고 레일까지 밀려나온 테이블을 레일 밖 천막 속으로 익숙하게 밀어 넣는다. 그리고 열차는 이상 없이 지나간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신기한 듯 본다.

한국에도 이러한 철길마을이 있다. 전북 군산 경암동의 철길마을이다. 일제강점기 신문용지 재료를 수송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70년대부터 마을을 형성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포 사거리'에서 '연안 사거리'로 이어지는 약 400m 구간을 말한다. 현재 열차는 다니지 않으며, 이색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휴가철이나 휴일이면 이곳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부산에도 철길마을이 있었다. 바로 우암선이 지나는 지역이다. 현재도 우암선이 있지만 노선이 많이 변경되었다. 원래는 부전역에서 출발하여 전포동과 문현동 주거지역을 통과하여 우암부두, 신선대부두로 이어진 노선이다.

열차는 아주 느리게 지나다녔고 열차가 다니지 않을 때 철길은 각자의 앞마당 혹은 뒤뜰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 되기도 한다.

레일에 걸터앉으면 레일이 벤치가 되기도 한다. 삶의 공간으로서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기차소리 없을 땐 사람 부대끼는 소리가 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옛날의 우암선은 사라지고 없다. 전포동 구간은 사람 다니는 골목으로 변했고 문현동 구간은 도로 확장공사로 사라졌다. 그 옆으로 금융단지가 들어서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30년 가까이 세월 흐른 사진 속 풍경이 간혹 그리워지곤 한다.

※ 92년 촬영한 사진들로, 위치는 문현교차로와 금융단지 사이에 있었던 철길마을이다.

그리고 재단

078 **듣기** | 부산문화재단은 □이다

080 **말하기** | 필(必)환경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문화예술

082 **보기** | 주요행사

부산문화재단은 [ ] 이다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2019년 부산문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지난 3월, 설립 10주년을 맞아 부산문화재단과 함께한 추억이 있는 모두가 참여 가능한 <부산문화재단 설립 10주년 스토리 공모>를 진행했다. 재단과 관련된 150자 내외의 짧은 스토리를 접수 받았는데 무려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담당자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는 후문. 지난 10년 동안 부산시민들은 부산문화재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장혜정 님 ▌ **부산문화재단은 [소통의 장] 이다.**

아이 수업 때문에 감만창의문화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하러 갈 때마다 팸플릿을 보게 되고, 문화재단 SNS 등을 통해 부산의 문화축제, 전시회, 공연 등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문화생활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올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홧팅~^^

황영아 님 ▌ **부산문화재단은 [깜짝선물] 이다.**

생각없이 걸음을 옮기는 중에 멀리서 들리는 음악소리. 크고 당당한 악기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빠져든다. 손 잡은 아이도 웬일인지 찡얼거리지 않는다. 지하철 깜짝선물! 자꾸 기다려진다.

이현아 님 ▌ **부산문화재단은 [공감] 이다.**

전문가가 아닌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이 많아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았어요. 청년 문화와 꿈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산문화재단 사랑합니다♥

박진아 님 ▌ **부산문화재단은 키즈카페 다.**

그림을 좋아하고 창의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아이에게 참여하고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주는 부산문화재단은 키즈카페 같은 존재입니다.

윤가을 님 ▌ **부산문화재단은 성장 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했던 장애우 설문조사는 나의 편견을 깨주고 한층 더 성장시켜준 뜻 깊은 곳입니다.

김현희 님 ▌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생활의 근원 이다.**

다양한 체험, 놀이, 공연으로 제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운 존재다. 항상 다양한 정보 부탁드리고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책임져주세요.^^

김혜진 님 ▌ **부산문화재단은 놀이터 이다.**

사상역에 갈 때마다 놀이터처럼 방문하는 사상인디스테이션! <색다른 展>을 봤었습니다. 데님 바지와 외투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이 인상 깊었어요.

이성원 님 ▌ **부산문화재단은 배움 이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지만 대학 졸업 이후 인문학 수업을 들을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작년에 관심 있는 소설가의 인문학 콘서트를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윤정원 님 ▌ **부산문화재단은 아이들의 꿈 이다.**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갈 곳이 키즈카페 정도밖에 없는 요즘, 부산문화재단의 릴레이 전시나 미술대회 등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아이의 관심사를 알고 꿈을 찾는 것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것 같아요.

리그노트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남극의 빙하는 지난 40년 동안 해빙 속도가 무려 6배나 빨라졌고, 그린란드 빙하는 1980년대보다 6배나 빨리 녹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바다거북 개체군의 99%가 암컷으로 태어나 멸종위기에 놓였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하와이의 상징적 명소인 와이키키 해변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오래지 않아 바다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은 모두 지구 온난화이다.

필(必)환경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문화예술

글.
안혜민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CM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

2019년 트렌드로 떠오른 필(必)환경.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친(親)환경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必)환경 시대가 됐다.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 소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필환경 시대에 맞춰 불필요한 포장재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국내외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다. 일상에서 개인들도 소비 습관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회사나 도서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고,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며, 무분별한 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챙겨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재단에서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개선해나가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사소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Natural STUDIO _ 1회차
<우리 집의 작은 나무 키우기>

- 미세먼지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식물을 통한 필환경 테마 체험 프로그램과 자연주의적인 녹색 공간을 제공(2019.04.05.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 문의: 한성1918 생활문화센터(051-257-8034)

Natural STUDIO _ 2회차
<미니 에코백 만들기>

- 일회용 비닐 대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 사이즈 에코백 만들기(2019.04.26.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 문의: 한성1918 생활문화센터(051-257-8034)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전시

-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사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 조던 작가의 전시. 작가의 생태의식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미드웨이: 자이어의 메시지> 시리즈 등의 작품과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까지 최초 공개(2019.05.24.~06.30. F1963)
- 문의: F1963(051-754-0434)

4$ SHOW _ 먼지는 하늘색

-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생활 속 사소한 실천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샤인임팩트 정승애 대표의 강연과 평소 환경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인기 뮤지션 장덕철, 분리수거 밴드 버닝소다의 공연 및 공기청정식물 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2019.04.27. F1963 석천홀)
- 문의: F1963(051-754-0434)

<에코 뭐니?> 페스티벌

-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가의 작품전시와 아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보는 이색 예술체험 운영. 축제현장을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나의 행동이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색다른 경험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2019.05.24.~05.26. F1963)
- 문의: F1963(051-754-0434)

April

4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Natural STUDIO 1회차 한성1918	6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정태춘 박은옥 40스페이스 부산 X 2019 시장밖예술 프로젝트 ~ 5. 12.(일) 한성1918	7
8 4월 <자리씨어터> 1회차 꼬마영웅 바비 감만창의문화촌	9	10	11	12 40계단 릴레이콘서트 40계단	13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Photo STUDIO ~ 11. 30.(토) 한성1918	14
15 4월 <자리씨어터> 2회차 판타스틱 부니베어 감만창의문화촌	16	17	18	19 40계단 릴레이콘서트 40계단	20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1
22 4월 <자리씨어터> 3회차 몬스터 섬의 비밀 감만창의문화촌	23	24 4월 사람책 읽는 시간 한성1918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7:30 사상명품공원광장 19:00 울산 업스퀘어 광장	25	26 40계단 릴레이콘서트 40계단 Natural STUDIO 2회차 한성1918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7:00 창원 오동동문화광장 인디 워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	27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원도심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장밖 예술 프로젝트> 대중문화 정책포럼 한성1918 4$ SHOW: 먼지는 하늘색 F1963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4:00 부산대역 문화나눔터 15:00 부산시민공원	28
29 4월 <자리씨어터> 4회차 꼬마돼지 베이브의 대모험 감만창의문화촌	30					

May

5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1 ~ 5. 15. (수) 홍티아트센터	**40계단 릴레이콘서트** 40계단 **2019 조선통신사 축제** ~ 5. 6. (월), (전시 5. 1. (수) ~ 5. 7. (화)) 용두산공원~광복로 일대~ 부산항만공사 행사장 국립부산국악원, 아스티 호텔 등		
6	7	8	9	10	11	12
		홍티예풍 <일상은 데일리북으로> 1회차 홍티아트센터	**이동형 무대지원 (달리는 부산문화) 지원형** 2회차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지역문화예술교육 말모이 in 부산** ~ 5. 10. (금) 한성1918 일대 문화예술공간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독립출판 창작 워크숍 시간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는다** ~ 6. 14.(금) 한성1918 및 원도심 일대	**메이드 인 사상** 10:00,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13	14	15	16	17	18	19
		홍티예풍 <일상은 데일리북으로> 2회차 홍티아트센터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메이드 인 사상 - 목공예, 캘리그라피** 10:00,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	21	22	23	24	25	26
		홍티예풍 <일상은 데일리북으로> 3회차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2** ~ 5. 31. (금) 홍티아트센터		**인디 워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서면 특화거리(쥬디스 태화 쪽) **2019년도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서면 특화거리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부산시 전역	
27	28	29	30	31		
		5월 사람책 읽는 시간 한성1918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7:00 부산대역 문화나눔터 19:00 광안리 만남의광장		**Music STUDIO 기획공연** 한성1918 **Natural STUDIO** 3회차 한성1918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9:00 울산 삼산 사이그라운드		

Music STUDIO
매주 화, 수, 목, 금
(5월 중순 이후)
한성1918

안녕하세요 예술씨
5월 매주 토요일
감만창의문화촌

Jun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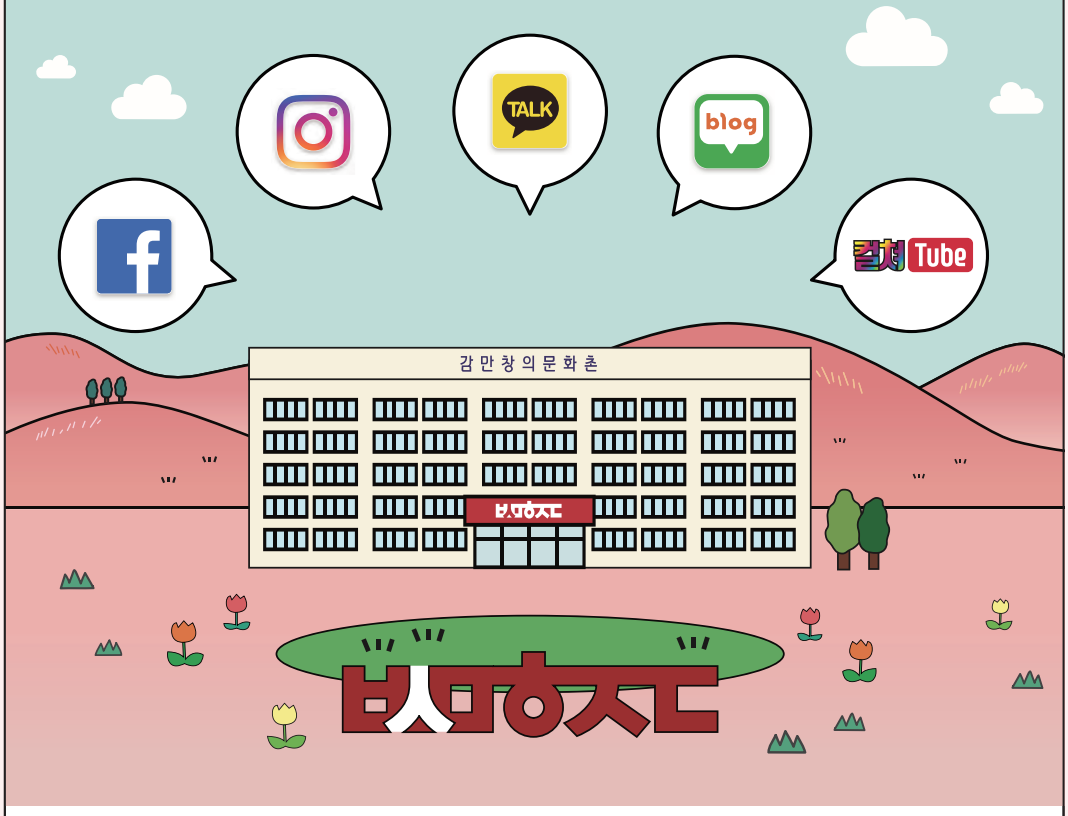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3:00 거제 포로수용소 15:00 부산시민공원	2
3	4	5 **홍티예풍** **<일상은** **데일리북으로>** 4회차 홍티아트센터	6	7	8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9 **메이드 인 사상** **- 목공예, 캘리그라피** 10:00,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10	11	12	13	14	15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16
17	18	19	20	21 **인디 워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	22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3 **메이드 인 사상** **- 목공예, 캘리그라피** 10:00,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24	25	26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7:00 부산대역 문화나눔터	27 **한성1918 일상** 한성1918 **Natural STUDIO** 4회차 한성1918 **6월 사람책 읽는 시간** 한성1918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9:00 해운대 이벤트광장 19:00 달리는 부산문화	28	29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 14:00 거제도 바람의언덕 15:00 부산시민공원	30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 다 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이
가능하다.



좋아요 | 이웃신청 | 〈컬처Tube〉 구독 신청 | 팔로우 | 옐로아이디 친구 추가

문화동행 10년,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을숙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모퉁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 · 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홍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3 E-mail. aktw5555@bscf.or.kr

시23 · 차성욱 작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91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